

누구나 부처될 마음을 품고 있다

훌륭한 가문에 태어났다고 ‘바라문’이라고 할 수 없다. 비록 비천한 노비 출신  
일지라도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! 그를 일러 ‘훌륭한 성자’라고 한다.